

러시아 불교 ‘꿈틀’

러시아연방 공화국들이 최근 전통사원을 재건하고, 전통 의식을 복원하는 등 러시아불교가 ‘꿈틀’ 거리고 있다. 인터넷 언론 ‘파울(Phaul.com)’은 11월 26일자 기사를 통해 ‘러시아불교 발전의 장애물은 제거됐다’란 제목으로 탄트라 수행의식을 복원한다는 내용을 보도한데 이어, 러시아언론 ‘투바온라인(Tuva-online)’은 ‘수트홀스키 지방 티베트하이아에 사원을 건립한다’고 전했다. 수백년부터 티베트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바이칼 인근 부랴트, 투바, 칼미크 등 공화국들의 불교중흥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10월, ‘가덴 쉬드랍 초익홀링(Gaden Shechhorling) 불교사원’ 건립 10주년을 맞아 이 날을 국경일로 선포하고, 울 초에 높이 9m의 유럽 최대 불상과 ‘유럽 불교센터’를 수도 엘리스타에 조성한 러시아연방 칼미크 공화국. 이번에는 수천명 국민들이 수도 엘리스타의 새 사원인 ‘석가모니 금사원(The Golden Abode of the Buddha Shakyamuni)’에 모여 장중한 탄트라 의식을 거행했다고 ‘파울’이 전했다.

이 소식에 따르면, 칼미크의 수석 라마 델로 툴쿠(Telo Tulku) 림포체는 “우리는 칼미크에서 대대손손 전승돼 온 오랜 불교 전통의식을 복원하는 꿈을 키워왔지만, 그 동안 러시아 역사의 암흑기를 거쳐 지금까지 단절됐다”며 “탄트라 수행과 의식이 지유드메드(Gyudmed) 수도원 스님들의 도움 덕분에 3년 전부터 복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복원된 의식은 불법의 정신적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일명 ‘토르그악(Torgyak)’ 이 의식에서는 매년 저무는 해의 말미를 기리기 위

칼미크, 3년전부터 탄트라 의식 복원
120m 만트라 조성한 투바, 사원 건립 박차
달라이 라마 등 티베트 스님들이 포교 주도

해 칼미크에서 3일간 기도를 했던 제사장 옐로(Yelo) 림포체가 특별히 참석하기도 했다

‘파울’은 특히 “지유드메드 수도원의 티베트 스님들은 15년 교육과정의 탄트라 의식수행을 밟아온 수행자”라며 “지난 5년간 매년 칼미크 공화국에 초대된 이들 지유드메드 수도원 스님들은 남부 러시아 공화국의 불교부흥을 지켜보는 것을 기뻐했다”고 전했다.

총 120m 길이의 세계 최대 만트라를 조성한 투바공화국도 불교사원 건립 중이다. ‘투바온라인’은 11월 8일 사원 건립을 위

한 초석을 놓는 상량식을 거행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은 ‘투바 공화국 수도 키질 시의 드미트리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불교사원 건립을 위한 후원 단체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바 공화국은 이미 사원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티베트하이아 지방에서 마라본 대회를 개최하는 등 모금활동을 벌여 미화 2,500달러를 조성했다.

러시아불교의 중심지인 부랴트 공화국도 최근 10년간 불교건축 공사를 진행, 사찰 20여 곳을 새로 건립하거나 복원하는

등 불교 중흥에 나서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부랴트 공화국이 지난 2월 울란-우데의 근교에서 새로운 사찰 ‘데바진(Devazhin)’을 개원했다”며 “부랴트 공화국 정부는 부랴트내의 불교사찰 건설 및 복원을 위해 올해 연방 예산에서 약 100만 루블의 지원금을 배당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데바진” 사찰 주지 바이르 스님의 말을 인용, “2만 5000여 명의 신도들이 기와불사에 동참한 덕에 사찰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4개월간의 외벽공사가 끝나고 몽골과 부랴트 조각가들이 40여 구의 불상을 조성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러시아연방 공화국들에서 불교 부흥 붐이 일어나자 현지 언론들은 그 원인에 대해 “러시아불교를 이끄는 주도층이 달라이라마 등의 티베트 스님들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언론은 또 “러시아 개방을 기점으로 양성된 불교포교 활동을 벌여온 티베트 스님들이 최근에는 사원 건축 중심의 외형적 불사는 물론 탄트라 의식 복원 등 무형문화유산에도 관심을 넓혀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칼미크 공화국에 최근 열린 ‘토르그악’ 의식의 경우, 달라이라마가 2004년 11월에 이 공화국을 방문했을 때 처음 보행했을 정도로, 티베트 불교가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이 당시, 깨달음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날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는 상징물인 ‘토르마(torma)’를 사용한 토르그악 의식에서, 12년 넘게 정신적 지도자를 친견할 기회가 없었던 수만 명의 러시아 불자들은 엘리스타 사원에 운집했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참선 방해된다” 성기 자른 태국스님

자신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려는 생식 목적을 위해서만 성욕이 일어나고 성관계를 맺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적 욕구가 터져 나오는 특별한 존재이다. 이미 원시 구석기 시대의 암각화에서도 이 문제를 과장해서 표현해왔고,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이 성 문제 때문에 숱한 문제들이 발생해왔다.

역사상 수많은 성인·철학자들이 “성적 욕구를 억제·자제하라”고 가르쳐온 것도 어찌 보면 그것의 자체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지 모른다. 서양 문헌사에서 ‘불후의 고전’이라는 평을 듣는 <데카메론>을 비롯한 수많은 문학작품에서도 신부·수도사나 수녀의 문란한 성 문제가 거론되었고 아담집에서는 단골 메뉴가 되다시피 하였다.

서양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중국의 옛날 스님들의 일화를 전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당위적으로만 말할 수도 없는 복잡 미묘한 배경이 있다.

“참선에 방해가 된다”며 성기를 잘라내고 봉합 수술을 거부한 이 스님의 결정이 옳은 것일까? 명상이나 참선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지경에 이를 정도라면, 그 스님이 설사 가부좌를 하고 명상에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실제 마음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혹은 마음은 안정되었지만 육체적 고통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의사의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스님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스님들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리기도 한다.

그러나 극단적 행위가 과연 부처님 법에 맞을까? 부처님 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가? 인간의 기초적인 문제를 풀어줄 수 없다면, 명상이나 참선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파 줄’의 법문에 비추어보면, 이런 스님들의 행위는 ‘비파 연주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줄을 꼭 죄어 결국 끊어버리고 마는 극단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이 극단적 행위자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풍조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좋은 곡을 연주하기에 딱 맞게 ‘비파 줄’을 조절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훌륭한 비파 연주가 될 수 없고, 이런 제자를 가르쳐온 스승도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 마찬가지로, “욕구를 끊어버리겠다”며 극단적 행위를 하는 스님들은 훌륭한 수행자가 아니며 이렇게 밖에 가르치지 못했던 지도자들도 훌륭한 스승이라고 할 수 없다.

“참선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성기를 잘라낸 태국스님 이야기를 전한 <로이터 통신>의 짧은 기사가 우리 불교계에 던지는 ‘물음’이 만만치 않다.

“참선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성기를 잘라낸 태국스님 이야기를 전한 <로이터 통신>의 짧은 기사가 우리 불교계에 던지는 ‘물음’이 만만치 않다.

출가 수행자에게 있어 성 문제는,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 자유기고가

interview

인순 법사 탄생 100주년 맞아 전기 낸 작가 판수앤씨

“‘인간불교’ 주창한 인순 법사, 생명력 충만한 실천가”

“스님의 일생은 ‘생·명·력·충·만(充滿生命力)’, 이 다섯 글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년을 사셨던 스님은 조산아로 태어나 강한 체력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인간불교(人間佛敎)’ 사상을 널리 펼치셨던 대만 근대불교의 아버지셨어요.”

‘인간불교’의 주창자 인순(印順) 법사(1906-2005).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사상과 행적을 담은 사진집 <법영일세기(法影一世紀)-인순도사 100세>를 최근 펴낸 작가 판수앤씨(潘舒)씨는 “불교는 세간(世間)에 있음을 깨달으라”는 인순 법사의 인간불교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미 인순 법사의 사상과 일생을 13만자로 된 <인순도사전>도 펴냈던 판수앤씨. 11월 23일, 타이페이 변화가 한 빌딩 오피스에서 만난 판수앤씨는 인순 법사에게 받은 ‘홍웨이(宏暉)’란 법명을 소개하며, 스님의 마지막 유훈을

자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스님의 전기란 쓰게 된 것은 정말로 우연이었어요. 사실 전기 발간은 대만 ‘천하(天下) 문화출판사’의 중요한 출판 사업 중 하나였어요. 당시 불교계에 일하던 저는, 아흔이 훨씬 넘으셨던 스님을 2001년부터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해 전기집을 출간하게 됐어요.”

판수앤씨가 펴낸 <법영일세기>는 인순 법사의 100년 행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와 사진은 물론, 일대기까지 표로 구성했다.

“원래는 스님의 100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기획했던 책인데, 스님이 원저에 드신후 책이 나와 매우 안타까워요. 청대에서 중화민국까지 100년을 사셨던 스님은 육체적으로 갖은 병과에 시달리고, 전통 불교방식과 부딪쳐 공격과 반대를 받았지요.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정이앤(證嚴) 스님의 자제공덕회, 추원따오(傳道) 스님의 학술 편찬 사업, 짜오후이(昭慧) 스님의 호생(護生)의 환경보호 운동 등으로 현재도 이

여저고 있어요.” 판수앤씨는 ‘실천’을 강조했던 인순 법사의 가르침과 수행법도 설명했다. “스님은 늘 실천한 만큼 성취하게 된다고 하세요.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은 생각만 으론 안 된다. 진정 실천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염불의 ‘염(念)’자는 생각하며 잊지 않는다는 뜻이, 그저 입으로 읊지 말고, ‘마음’으로 외라고 하셨습니다.”

이어 판수앤씨는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던 인순 스님의 생전 모습도 회상했다. 교육부 문예창작상, 불광 문학상 등을 수상한 판수앤씨는 현재 각종 불교단체에서 강연하고 있다.

대만=이상이 통신원



자비복지, 승가원이 앞서갑니다. www.sgwon.or.kr

승가원자비복지타운 건립기금모금에 관심을 가져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으로 원주 소쩍새마을 장애인가족들이 이천 승가원자비복지타운으로 무사히 이사하였습니다.

21년간 치약산 골짜기 낡은 건물에서 생활하던 장애인가족들의 새로운 시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승가원은 장애인가족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후원계좌 (예금주: 승가원) 국민은행 093401-00-286395 승가원 Tel. 02-928-0750